

# '5·18에 빛진자'로 진실규명·명예회복 헌신



박용수(65)씨는 유신체제 타파와 민주화를 위해 독서잔디를 결성했고, 언론인으로서 5·18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힘썼다.

## 70년대 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14〉박용수

### 전남대 '독서잔디' 창립...유신 체제 타파·민주화 앞장 언론인으로 5·18 진실보도...“역사 흐름에 존재 영광”

불렀던 노래 가사의 일부다.

박용수(65)씨는 진도 출생으로 전남대 사범대 화학교육과를 입학해 같은과 친구였던 광주일고 출신 강성일과 유신체제 타파와 민주화를 위해 독서잔디를 결성했다.

이 모임에는 지병문(독서잔디 고문)과 이항규, 류우연 등 광주일고 피닉스 출신과 구병욱, 조현종 등 6명이 함께 했으며, 기존 '일몰회(태양은 진다)'로 작명했던 모임은 학생처의 거부로 독서를 럽명인 '독서잔디'로 변경됐다.

독서잔디는 동아리 등록 때마다 지도교수 선임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중요한 시국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들이 투옥·체포되는 등 탄압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70년대 이후 전남대 학생운동의 한 축으로 신영일, 전용호, 문석환, 이수영, 한

경, 김승남, 최항동 등 많은 학생운동 지도자를 배출했다.

박씨는 교사였던 아버지를 본받고자 자연스럽게 사범대에 입학했지만, 사회과학 성향 서적을 읽으며 의식을 깨우치고 시대상황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를 위해 그는 독서잔디 회원들과 매일 모여 토론을 이어갔다.

보다 의미있는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그는 1978년 처음 봉심정을 창립했다.

당시 봉심정은 운동권에서 민청학련 세대와의 연결점이자 학생운동, 시국 논의를 위한 아지트로 정평이 나 있었다.

시내버스 종점에서 내려 산, 들, 논, 밭뿐인 허허벌판을 올라가야 했지만 학생들은 그곳을 찾아 밤새워 토론을 이어갔고 단체생활을 하며 민주 의식을 성숙시켰다.

박씨는 봉심정이 당시 민주인사들의 주요활동이 이뤄진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의 큰 물줄기였던 루사과 독서잔디 학생들이 모두 봉심정을 찾아 반유신과 민주화를 목표로 시국토론을 진행했고, 이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구심체 기능을 했다는 것.

두 서클은 이후 탈춤반·들불야학 등으로 계속해서 분화해 나갔고, 5·18민주화운동에서 응집된 결정체로 활약했다.

1979년 여천 화양중학교로 발령받은 박씨는 뜻을 이루지 못한 민주화 운동이 못내 마음에 걸렸고, 1980년 5월18일 졸업 후 운동권 모임 결성을 위해 계림성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전남 신문부의 계엄령 확대, 사전구금 등 민주화 동제가 심해졌고, 박씨는 지방주와 시내 현장에서 이동해 경찰과 대치중인 시위대에 합류했다.

최루탄이 계속 터져 숨도 쉬기 버거웠지만, 그는 시위대와 함께 민주화를 외치면서 계엄령에 맞섰다.

오후에 소총을 메고 한 손엔 곤봉을 든 작검상태의 계엄군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혼비백산했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됐다.

새벽 두암동 자택에 겨우 도착해 다음날 학교 출근을 위해 시내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한 박씨는 수 없는 검문을 거쳐 겨우 여천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잠 못 드는 날의 연속이었다. 집단적 강경 진압이라는 국가폭력을 눈앞에서 마주했던 그는 시민과 동료들이 쓰러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무력감에 독주로 잠들어야만 했다.

박씨는 당시를 '의협심이 끊어올라 가슴이 불타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를 담아 21일 학교에서 잉크로 빼곡히 쓴 성명서를 작성해 광주로 향했다.

하지만 시위버스 등 모든 이동 경로는 이미 막혀 있어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마침내 도착한 27일 그는 5·18의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의 소식을 들었고 동지와 선·후배, 시민들에게 빚졌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어 군 제대 후 곧바로 언론인의 길로 들어섰다.

박씨는 1985년 CBS공채로 입사해 5·18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나섰다.

강경한 언론탄압 상황에도 그는 5·18 기념에배 성명발표 행사, 5·18민주화쟁 5주기 등 시민사회 재야단체 행사를 크

게 취재·보도했다. 실제 6월항쟁 시위현장에서는 언론탄압을 이겨내는 진실 보도로 시민들에게 환호와 주목을 받았다.

이후 1989년 5·18 희생자의 유골 발견에 대한 단독보도를 하는 등 현장 취재기자로 서 최선을 다해 '빛진자'의 몫을 이어갔다.

그는 또한 5·18 당사자의 직접증언을 담은 영상기록 필요성을 느끼고 1996-1999년 증언기록사업에 함께했다.

조아라, 홍남순, 송기숙, 외신기자 등 300여명의 영상증언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는 201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5·18 민주화운동이 등재될 때 함께 등록됐다.

이후 박씨는 광주CBS 본부장, CBS 상무, 고려인동맹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광주시청 민주인권평화국 국장을 역임하면서 '빛진자'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평생을 쏟아부었다.

그는 "광주를 이끈 민주 선배들의 맥을 이어 다시 이어가는 학생운동의 큰 흐름에 연결고리로 존재했다는 것은 영광"이라면서 "봉심정은 작은 공간이지만 70년대부터 수많은 조국 민주화를 위해 힘

쓴 민주열사들이 시국 정당을 논외로 하고 민주화를 도모하던 공간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 법원, 전남방직 내 요양병원 강제전원 완료...폐쇄 수순

### 환자 165명 타병원 이송 집기류 철거 집행 후 폐쇄

광주지방법원이 명도소송에도 패하고도 병원을 비우지 않는 전남방직 부지 내 요양병원의 환자를 지난 20일 강제전원 조치했다.

광주지법 집행관은 이날 오전 7시 25분을 기해 광주 북구 전남방직 부지 내 A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강제전원 조치에 나서 165명의 입원 환자를 이날 오후 1시 20분까지 광주 관내 5곳 요양병원에 순차적으로 분산 이송했다.

일부 환자는 타병원 전원을 거부하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날 강제 명도 집행에는 용역, 전남방직 사측, 의료 종사자, 경찰·소방 등 400명 이상이 동원됐다.

명도 집행 개시를 전후에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 일부의 반발이 있었으나, 큰 충돌 없이 환자 이송이 진행됐다.

이날 환자 전원 조치를 완료한 법원 측은 병원 내부 집기류를 치우는 명도 집행을 이틀간 추가 진행하는 것을 끝으로 해당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오전 전남방직 부지 내 요양병원에서 광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입원환자를 강제 전원 조치하는 명도 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요양병원 환자들이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현장 안전관리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으나, 큰 충돌 없이 전원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집행 과정에 안전사고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남방직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며 2020년 세입자들과 임대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퇴거를 거부했고, 명도 소송을 제기한 전남방직은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철거 집행을 법원에 요청했다. /오복기자

## '분양권 투기 의혹' 광주 지산1구역 지주들 무죄

분양권 확보를 위해 가족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주 주택 소유주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주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사업주 내의 원룸을 각각 6천250만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녀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개발지역 원룸 18가구를 거래하며 법정수수료 가액인 615만원을 초과해 3천375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았다.

피고인 중에는 지난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애초 다가구주택이었으나 분양권이 많이 나오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원룸을 산 것으로 봤다.

이들 지주는 가족이 스스로 부동산을 사거나 매수 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명의신탁과는 달리

부모·자식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원룸 또는 매수대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들이 매수대금의 절반 또는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국제청에 신고한 점, 세금을 자녀가 부담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박 부장판사는 "재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녀 이름으로 등기했다거나 중개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고 어렵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 화재 신고 차량서 시신 발견

광주 서구 풍암호수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시신은 전날 오후 7시17분께 해당 차량의 화재 진압하던 소방관이 발견했다.

앞서 소방 당국엔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난다는 행인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당국은 차량을 살피다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등을 살피고 있다. /안재영기자

제사나라 www.jesanara.com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안전기준제 고사  
▶ 시 제 상  
▶ 제 사 상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